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 1990년대 신의주, 청진, 혜산을 중심으로

최봉대(북한대학원대학교)·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1. 문제제기

1990년대 이래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해체, 김일성 사망,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빚어낸 대내외적 정치경제적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단히 험거운 국가적 존속의 길을 밟아왔다. 이 노정의 이면에는 계획경제의 파탄과 식량배급제의 와해에 따른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 주민의 대규모 아사와 국외 탈주라는 참변이 도사리고 있다.

1990년대의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북한체제가 존속할 수 있었던 유력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장마당의 활성화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¹⁾ 장마당은 식량배급제의 붕괴에 대응하여 주민들이 생존과 생

1) 1980년대까지 북한의 ‘농민시장’은 국가 계획부문에 대해 부차적인 지위를 갖는 ‘합법적인’ 비계획부문으로서, 주민들의 일상적 생계유지활동을 보조하는 제한적 역할을 해왔다. 이에 관한 논의로는 최봉대·구갑우, “북한 도시 농민시장 형성과정의 이행론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제6권 2호(2003) 참조. 이 글에서 사용하는 ‘장마당’이라는 용어는 북한주민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1980년대까지와는 달리 1990년대에 도시 농

계유지를 위해 ‘자력갱생’할 수 있는 경제적 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의 역사적 실패에 비취볼 때, ‘비계획부문(비공식부문)’의 중심에 놓여 있는 장마당 활성화는 주민들로 하여금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 계획부문이 아닌 시장적 거래에 의존하게 했다는 점에서 북한체제의 변동전망과 무관할 수는 없다.²⁾

1990년대 북한 비공식부문에 관한 기존 국내연구들도 대체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몇 가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³⁾ 우선

민시장이 주민들의 일상적 생계유지활동의 중요한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이에 따라 이전의 농민시장과 달리 포괄적인 의미에서 계획부문으로부터 자율적인 경제적 공간으로의 전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장마당의 ‘활성화’란 농민시장의 이런 질적 전화 가능성의 외현적 징표라고 할 수 있는, 장마당을 매개로 한 물자 교류와 시장적 거래 관계의 확산 및 장마당 참가자의 증가 현상을 지칭한다. 본문에서 언급하게 될 ‘장마당’과 ‘농민시장’이라는 용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구분에 의거하여 사용한다.

- 2) 한 가지 유의할 점은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경우와는 달리 구소련이나 헝가리와 같은 동구 일부 나라에서 개별 가구 또는 가계의 비공식부문 경제활동 참가는 공식적인 본업에 의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보장받는 처지에서 좀더 나은 물질적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부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Gur Ofer and Aaron Vinokur, *The Soviet Household under the Old Regim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참조. 이와 대조적으로 루마니아의 경우는 1980년대에 본격적인 경제침체와 빈곤의 확대재생산이 계속됨에 따라 개별 가구의 비공식부문 경제활동도 급증했는데, 이는 절박한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결한 선택이었다. Manuela Stanculescu, “Romanian Households between State, Market and Informal Economies,” Rainer Neef and Manuela Stanculescu eds., *Social Impact of Informal Economies in Eastern Europe*(Aldershot: Ashgate, 2002) 참조. 비공식부문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관한 다양한 정의로는, S. Feldman and E. Ferretti eds. *Informal Work and Social Change*(Ithaca, NY: ILR Press, 1998); Rainer Neef and Manuela Stanculescu eds., *Ibid.*, pp.1~27; Sergio Alessandrini and Bruno Dallago eds., *The Unofficial Economy*(Brookfield, Vt.: Gower, 1987) 참조.
- 3) 오승렬, “북한의 경제적 생존전략,”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1996);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김영윤, “북한 암시장의 경제·사회적 영향,”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1997) 등 참조.

북한의 비공식부문의 활성화는 근본적으로 계획경제에 고유한 부족의 경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또 경제영역에 대한 정치권력의 압도적인 우위라는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상 비공식부문의 성장에 의한 북한체제 변화의 가능성을 거의 배제하고 있다. 대체로 1990년대 경제위기의 심화와 연관된 비공식부문의 활성화 문제를 계획경제의 한계 또는 침체상황을 보완하는 제한적인 기능적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북한의 비공식부문의 활성화는 정치영역에 의해 과잉결정되는 한편, 그것의 경제적 기능이 우선적으로 강조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공식부문의 '활성화'라는 동태적 과정이 함축하고 있는 정치적·사회적 의미의 분석보다는 경제적 기능의 정태적 분석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 북한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실태와 그 의의를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준)접경지역 세 도시(청진, 신의주, 혜산) 장마당 사례를 검토하여 제한적 수준에서나마 규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990년부터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새로운 경제관리체제’)가 시행되기 이전까지를 세 소시기—‘고난의 행군’, 그리고 고난의 행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소시기별 장마당의 실태와 시기별 변화의 계기에 주목하면서 세 도시 장마당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체제변동론적 맥락에서 세 도시의 장마당 활성화가 지닐 수 있는 의의를 정치적·사회적 효과 면에서 검토할 것이다.

2. 작업대상 도시 및 자료 문제

이 글에서 검토할 세 도시의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 도시는 모두 도 소재지—함북도 청진, 평북도 신의주, 량강도 혜산—라는 행정구역상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비춰보면 2000년경 세 도시의 주민 수는 청진이 60여만 명, 신의주가 30여만 명, 그리고 혜산이 18만여 명 정도 되는 것 ‘같다.’⁴⁾

세 도시의 산업구성은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청진은 중공업 부문의 대규모 공장이, 신의주는 경공업부문 공장이, 그리고 혜산은 임산가공 관련 공장과 광산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분포되어 있다. 또 청진과 신의주는 바다에 접해 있어서 수산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1980년대 중반 이래 해산물을 원천으로 한 외화벌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 도시의 이런 산업구성은 대체로 일제시기의 기본 골격을 이어받고 있다.

지리적 조건을 보면 청진은 중국 쪽과 국경을 접하는 접경도시는 아니지만, 항을 끼고 있고 라선, 회령, 남양 등을 통해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과 물자 교류 및 인적 이동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이다. 신의주는 압록강 하구를 사이에 두고 중국 요령성 단둥시와 마주 보고 있고 압록강 철교와 우의교를 통해 양 도시 간에 물자 교류 및 인적 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의주는 북한 전체적으로도 대중교역량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하다. 혜산은 압록강(상류)을 사이에

4) 이런 추정치가 얼마나 실제 주민 수에 근접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실제로 고난의 행군에 들어간 이후 식량을 얻기 위한 주민들의 ‘자유이동’을 거의 통제할 수 없었고, 그 여파로 2000년 무렵에도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정확한 인구통계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일조선인 학자인 문호일의 “우리나라의 인구통계”(미발표 논문)에서는 특히 북한의 남성 대 여성의 성비가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 매우 낮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동단위의 로동부대”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들이 주민등록체계에서 빠졌음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정확한 인구는 그 자체가 주요한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93년 “인구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표 1> 피면접자 기초 인적 사항

피면접자	성별	연령	직업
C31(-3, -4, -5)	남	50대	행정지도원
C34-1	여	40대	사무원
C35(-1)	남	50대	외화별이 지도원
C42	남	30대	자재지도원
C45	여	30대	설계원
C48-1	남	40대	외화별이단위 사장
C50(-1, -10)	여	50대	자재지도원
C52	여	30대	교원
S0-1	남	40대	외화별이 지도원
S14-1	남	40대	자재인수원
S18	남	40대	외화별이 지도원
S19(-1)	남	40대	자재지도원
S21	남	70대	연로보장
S22(-1)	여	30대	부양
S23	남	40대	외화별이 지도원
S9-2	남	60대	외화별이
H2	남	30대	기사
H3(-1)	여	40대	교원
H6-1	여	60대	자재지도원
H7	남	60대	당일꾼
H9	남	40대	자재지도원
H12	남	30대	행정지도원
H13(-1)	여	60대	외화별이 일꾼
H14	여	30대	사무원
H15	남	40대	운전사
H16-1	여	30대	부양
H17-1	여	50대	의사
H18(-1)	여	30대	부양
E7	남	50대	무역일꾼

비고: 1) '피면접자' 항목의 '(-숫자)'는 동일인에 대해 2회 (이상) 면접을 실시한 경우를 뜻함.
 2) 피면접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연령을 포괄적으로 처리했고, 학력관계 사항은 밝히지 않음.

두고 중국 길림성의 장백현이 ‘코앞에 있을 정도로’ 중국과 가까이 위치해 있고, 협폭의 친선다리로 장백현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만 혜산이나 장백현 모두 지리상 두 나라의 변방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청진이나 신의주와 달리 소규모의 밀무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에서 보겠지만 북한의 ‘앞지대’ 내륙지방 도시들과 다른 세 도시의 이런 지리적 조건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도시 장마당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글에서는 연구주체의 성격상 세 도시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⁵⁾ 탈북자 증언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확보했는데, 면접조사는 2002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실시했다. 이 글에서 활용한 면접자료는 총 40건이고, 총 피면접자 수는 29명으로 일부 피면접자에 대해서는 2회 이상 면접을 실시했다. 피면접자의 출신 도시별로 보면 청진이 8명, 신의주가 8명, 혜산이 12명 그리고 기타 지역 출신이 1명이다. 도시별 면접자료건수는 청진이 14건, 신의주가 10건, 혜산이 15건이고 기타 지역은 1건이다.

<표 1>은 피면접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피면접자 코드에서 C는 청진 출신, S는 신의주 출신, H는 혜산 출신, 그리고 E는 기타 지역 출신을 뜻한다.

3. 세 도시 장마당의 활성화 과정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장마당에 ‘소극적으로’ 출입했던 세 도시의 주민 일상생활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된 것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5) 단적인 예로 1990년대 이후 거의 북한의 전역에서 장마당이 점차로 확산되어 왔지만, 북한 당국은 2003년 4월에 기존의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하는 국가적 정책이 시행된다는 간략한 보도가 나오기까지 공식 매체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다.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식량 ‘미공급’ 사태가 본격화되고, 아사자가 점차로 늘어나면서 도시 장마당은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식량을 위시한 기초생활품의 국가공급체계가 붕괴되면서, 대다수 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장마당과 직간접인 방식으로 연계를 갖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⁶⁾ 여기서는 세 도시 장마당의 공간적 확산과정을 주민들의 참가양태와 국가의 대응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세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진 장마당

(1) 1990년대 초반(1990~1994년)

1980년대 후반부터 긴장되기 시작한 청진 시내 식량배급 사정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더 열악해졌다. 식량배급의 지연, 감량 등을 빚대어 1990년대 초에 항간에 “하루 두 끼 먹기 운동”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돌 정도였다(C35). 따라서 생활형편이 더 어려워진 하층 가구의 일부 부양 여성들이 개인집에서 받은 중국 공업품이나 공장에서 절취한 물건들을 가지고 장마당에 나가 몰래 팔거나, 타지방 되거리에 나서는 일이 늘었다. 또 단속에 쫓기면서 소채류나 음식물을 골목 어귀 등에서 팔거나 하는 일도 1980년대에 비해서 더 빈번해졌다. 집안에서 재봉기를 가지고 동네 주민들의 의류를 수선하거나 해서 생계를 보조하는 부녀자들의 가내 부업도 늘어났다.

그렇지만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무렵까지만 해도 그 이전에 비해

6) 대다수 주민들은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적 관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판매자로서 장마당이라는 물리적 시장공간(market place)에 직접 참가하는 식으로, 또는 가내 ‘임가공’(수가공)해서 만들거나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의류, 식가공품, ‘공업품’ 잡화 등을 장마당 장사꾼에게 넘겨주는 식으로 장마당과 간접적인 연계를 가졌다.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메뚜기 장마당”이나 부녀자들의 장마당 참가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주민들은 “장사에 눈뜨지 못하고 식량배급과 노임만을 바라보고 살았다”(C45). 왜냐하면 이 시기만 하더라도 당국이 안전원, 치안대, 노동자 규찰대 등을 동원하여 장마당에서의 “비법적” 장사를 강력히 단속한 탓도 있지만, 반시장주의적 집합의식이 일반 주민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구속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⁷⁾ 실제로 이때까지만 해도 인공 장마당이 옮겨간 반죽 장마당이 여전히 시내에서 규모가 가장 컸고, 시내 장마당의 판세는 1980년대까지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다.

(2) 1990년대 중반(1995~1997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1995년 이후 시내 전체가 본격적인 식량 미공급에 들어가면서 시내 장마당의 지형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특히 김일성 사망 1주기 애도기간이 끝난 같은 해 중반을 넘어가면서 기존 장마당들에 부녀자들이 부쩍 몰려들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왕래가 좀 빈번하고 적당한 공터가 있는 곳이면 부녀자들이 모여서 장사하기 시작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영세한 하루벌이 음식장사가 가장 많았다.

인근 농촌지역이나 타지방을 상대로 한 ‘되거리’⁸⁾ 장사꾼뿐만 아니라 무산, 회령, 라선 등을 통해 반입된 의류와 옷감용 천 등을 취급하는 중국 공업품 장사도 부쩍 늘었다. 전체적인 장마당 유통물량에 비춰본다면 중국산 위주의 수입물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규모이긴 하지만 하지만 일부 대기업소·공장의 생필직장 등이나 지방산업공장에서 ‘8·3제품’ 명목으로 생산하거나, 개인들이 집에서 ‘임가공’한 공업품, 잡화, 식가공품 등도 시내 장마당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었다.

7) 이 점에 관해서는 최봉대·구갑우, 앞의 글, 177~179쪽 참조.

8) 물건을 사서 다시 비싸게 팔아넘기는 일을 의미하는 북한용어.

자재, 원료, 전력난 등이 극심해지면서 이 무렵에 대다수의 지방산업 공장들을 포함한 많은 공장·기업소가 조업을 중단했다. 이 무렵에 좀 규모가 큰 일부 공장·기업소는 종업원들을 동원해서 기존 부업지 경작에 힘을 쏟거나 새로 부업지를 개간해서 종업원 식량과 부식거리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도 했지만 그 효과는 한시적이었다. 따라서 종업원들은 무단 결근하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시간을 받아서” 생계를 해결하고 공장에 ‘8·3수입금’으로 일정액을 납입해야 되는 등의 처지에 내몰렸고(C31-3), 개별 가계의 생계유지의 주된 방편이 세대주에 연계된 배급식량과 생활비(‘노임’)에서 가족 단위의 ‘자력생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즉, 가족 구성원들의 공식 직업 대신에 부업이 주된 생계유지 수단으로, 그리고 장마당과 연계를 갖는 일이 가장 용이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부각되었다.⁹⁾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아사자를 포함한 사망자가 1995년에 적잖게 나오기 시작해서 1996~1997년에 가장 많았고, 이 무렵에 수남 장마당이 급격히 커져서 시내에서 가장 큰 장마당이 되었던 점에서 엿볼 수 있듯이 마땅한 대체적인 생계전략이 부재했던 대다수 가구 성원들은 장마당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¹⁰⁾ 당국도 이처럼 절체절명의 생존위기에

9) 식량배급이 끊겨서 ‘먹기 살기가 막연했던’ 일부 연로보장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농촌진출을 ‘자원’한 ‘450호 대상’이 나온 것도 1995년 이후의 일이다(C31-5).

10) “1997년 양력설을 맞으면서 공장·기업소에서 자체로 노동자들의 식량과 생산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보장하라는 것을 결정했다고…… 당 중앙지시문으로 내려와서 그 집행토론을 매 초급당별로 했다. 집행위원회에서 토의결정을 해서 토론한 것을 종업원 총회를 1월 3일에 열고 서로 대책을 다 토론하게끔 되었다”라고 한다(C31-4). 그래서 ‘하부 말단 작업반까지도 자기 작업반을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리겠나, 생산을 보장하겠나 하고 토론이 되어서’ ‘당 정책적으로 어긋나지 않고, 공장 당위원회에서 승인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대체로 많은 공장·기업소들은 종업원들을 집체적으로 외부 ‘노력동원’에 차출하여 본인 끼니를 겨우 보장해 주는 것 이외에는 종업원 가족의 생계유지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했다.

내몰린 주민들의 폭발적인 장마당 참가를 이전처럼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압적으로 단속할 수만은 없었다. 당국에서 수남 장마당에 우설비와 매대 등을 설치해서 장마당 내부의 무질서한 상거래를 통제하고자 했던 것이나, 원래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공업품의 판매를 어쩔 수 없이 묵인했던 것이나, 시내 다른 구역 주민들의 참가를 억제하기 위해 수남 구역 주민들만 수남 장마당에서 장사하도록 제한했던 것은 이런 변화를 잘 보여준다(C31, C34-1, C35-1).

(3) 1990년대 후반(1998~2002년)

청진은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청진철도공장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중공업부문 공장·기업소의 밀집도가 매우 높은 도시이다. 1998년 무렵에는 이런 큰 공장·기업소에서도 일감이 별로 없어서 종업원들의 출근을 형식적으로 통제하면서 이들이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도록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국은 이 무렵에 공장·기업소에 협동농장의 미경작지를 나누어 주고 “감자를 심어서 자급 자족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C42). 따라서 식량배급제의 복원에 희망을 걸고 그 이전까지 ‘장사’에 소극적으로 나섰던 종업원 가구들에서도 본격적으로 장마당에 뛰어들었다.¹¹⁾ 199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11) 고난의 행군 시기에 라남구역의 한 인민반에서는 김책제철과 청진조선소에 나가는 노동자 가구가 다수였는데, 청진조선소에 나가는 일부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식량을 배급받지 못해 아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조선소 노동자들 중에는 김책제철 노동자들을 부러워하고, 김책제철로 적을 옮기고 싶어한 사람들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시내 대기업소·공장의 노동자들은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데 상대적으로 무력했는데, 그 이유는 중공업부문 작업장에서는, 예컨대 난방취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김책제철의 수입 코크스나 고열탄과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절취해서 팔 만한 원료나 자재나 부품 등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C50-10, C31). 또 지방산업공장에 비해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적인 출근 통제가 훨씬 더 강력하게 이루어진 것이나, 대규모 기계설비를 이용한 생산공정과 연관된 기술이나 기능은 집에서 수작업으로 소형 변압기나 구두와 같은

청장년층 남성들에 의한 간접적인 방식의 장마당 참가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은 부분적으로 이 점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1990년대 말에는 청진 주민 대다수가 시내 장마당과 직간접적인 연계를 갖고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이 무렵에 당국이 기존 장마당을 재정비하고, 장마당이 없는 구역들에 장마당을 신규로 개설한 데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시내 주변 지역 장마당들의 신규 개설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시내에서 가장 큰 수납 장마당에 몰렸다.¹²⁾ 또 수납 장마당은 1998년 무렵에는 사실상 전국적인 ‘도매시장’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었는데, 이는 국내 소비재공업이 붕괴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청진에 수입 공업품이나 잡화 등이 대규모로 반입되고, 이 물품들이 전국적으로 팔려나가는 데 수납 장마당이 중개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청진의 지리적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 수산물 외 화별이 ‘원천’이 풍부한 관계로 청진에 많이 몰려 있던 중앙기관 외화별이 회사 지사들이 라선, 남양 등을 통해 ‘대치물자’를 수입하면서 식량이나 공업품 원자재 등을 수입해서 시장에 빼돌린 것이나, 청진항을 통해 일제 중고 가전제품이나 자전거 등이 다량 반입된 것도 청진의 유동물자를 증가시키는 데 일조했다. 또 1997년에 라선 출입이 용이해지면서 청진의 도매 되거리장사꾼들이 기관·기업소 명의를 빌리거나 개인들 간에 합자하는 식으로 해서 라선을 통해 중국산 공업품을 대량 수입해다가 시중에 풀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타지의 되거리 장사꾼들이 청진에 몰리게 되었고, 수납 장마당은 전국적인 거래를 연결시켜 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에는 무용지물이었던 사정과도 관계가 있다.

12) 다음 <그림 1>에서 보듯이 수납 장마당 내부구역은 별로 크지 않지만, 장마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단속에 쫓기면서 이동장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

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¹³⁾

물자 반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청진 시내 장마당들의 성장세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상품의 품목 수, 유통량, 시장 참가자 수 등을 놓고 볼 때 수남 장마당-포항 장마당, 청년공원 장마당-시외곽지역 군소 장마당들 순으로 위계적 연결망이 형성되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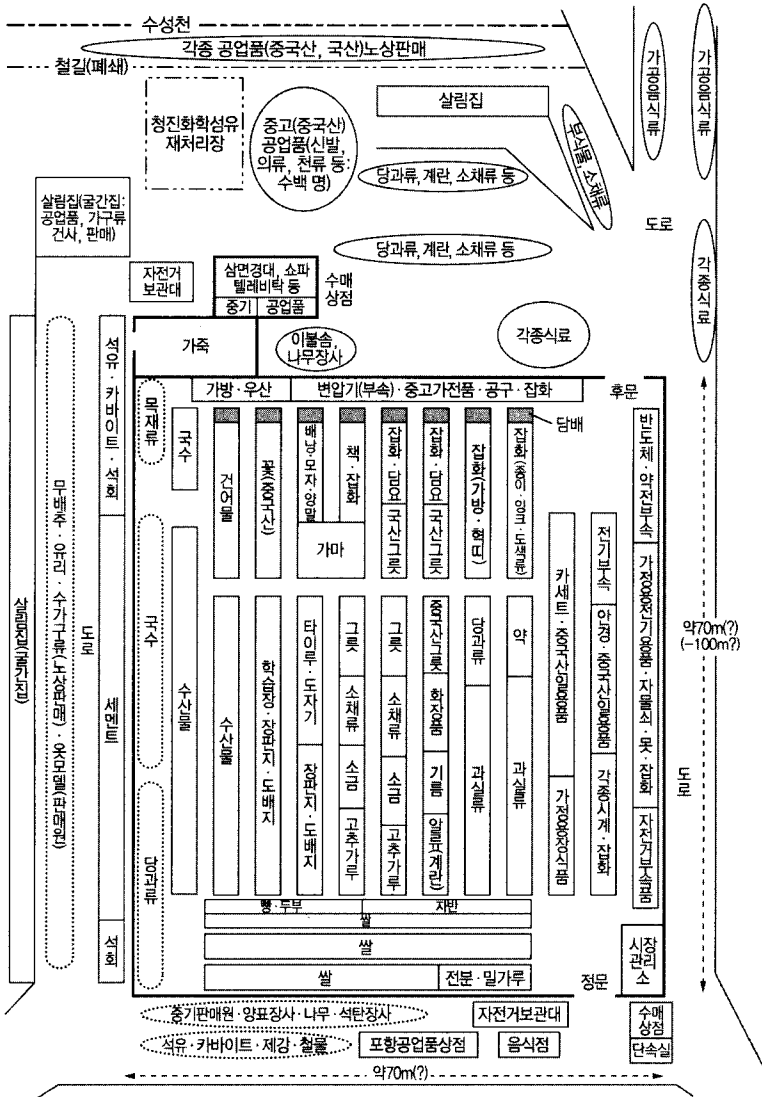
수남 장마당의 위상은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수남 장마당, 포항 장마당, 청년공원 장마당의 내부를 비교한 <그림 1>, <그림 2>, <그림 3>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수남 장마당은 포항 장마당이나 청년공원 장마당과 비교하여 다양한 종류의 물품이 거래되는 공간이었고, 각종 중국산 공산품이 유입되는 주된 통로였다.

이처럼 이 시기에 시내 주요 장마당은 더욱 확장되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당국은 다시 공업품을 압수하는 등 장마당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청진항을 통해 들어온 외국의 식량 지원 등에 힘입어 간헐적으로 소량이나마 명목상의 식량배급이 이루어질 때에는 단속의 강도도 높아졌다. 당국의 통제는 장마당 자체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1998년 후반에 “고난의 행군의 승리적 결속”을 선언한 이래 공장·기업소, 비생산단위, 인민반 등 각급 조직을 동원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고난의 행군 시기의 “개인주의”와 “비사회주의적 과오”에 대해 자아비판을 하게 하고, 정상적인 조직생활로의 복귀를 종용했다. 당국의 이런 정책이 실효성은 없었지만, 적어도 이 시기 장마당 활성화에 대한 당국의 기본 인식과 정책적 대응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는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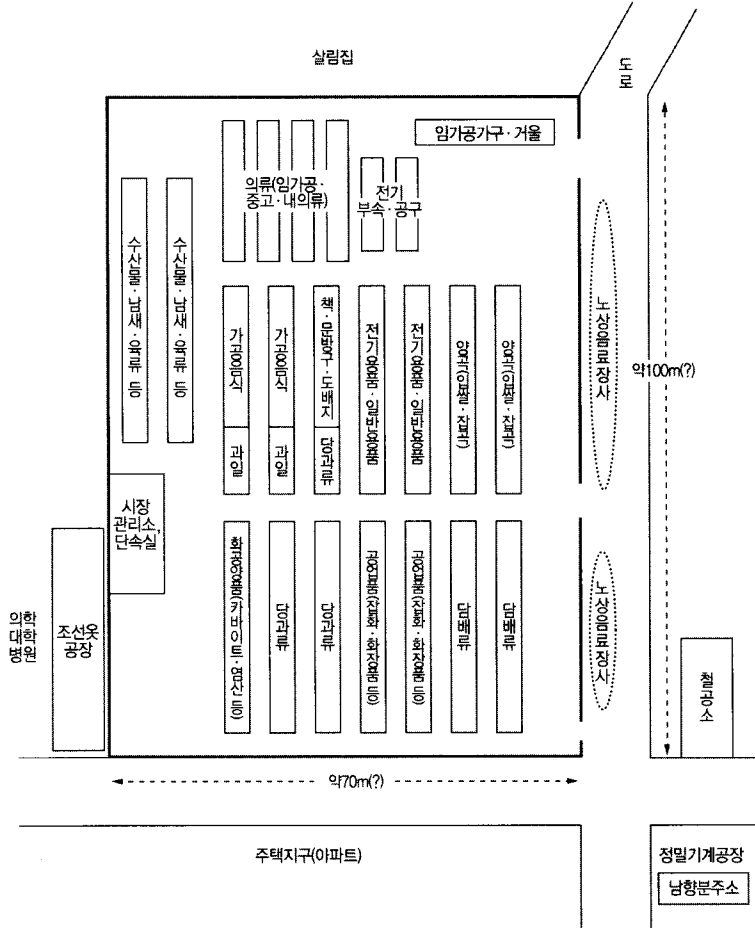
13) 신의주주는 국경도시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심해서 장사꾼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점도 수남 장마당이 커지게 된 데 일조했다.

14) 예컨대 규모가 수남 장마당의 1/10도 되지 않는 강덕 장마당 같은 곳에서는 “아무리 앉아 있어봐야 모든 물건이 잘 안 팔리는데, 아무래도 못사는 동네라 공업품 같은 것을 사는 사람이 없었다”(C52).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시내 중심지역의 장마당 주변 집값이 치솟을 수밖에 없었고 주민들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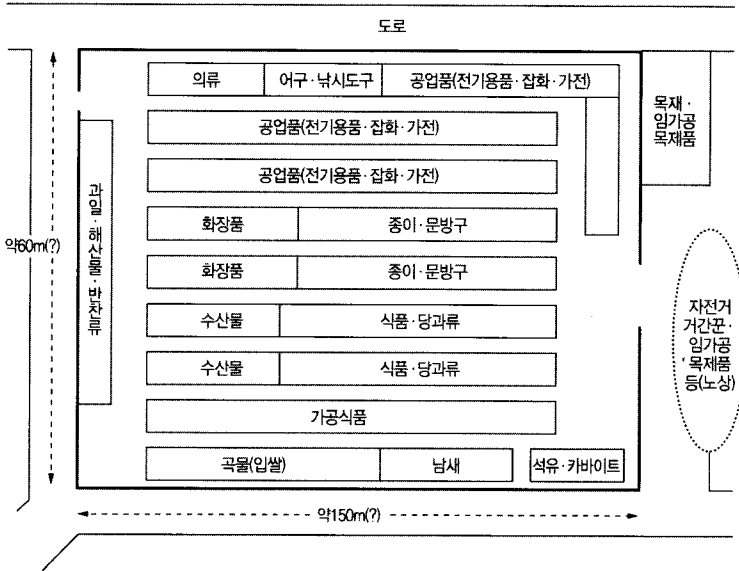
<그림 1> 청진 수남 장마당 매대 배치도(2002년)



<그림 2> 청진 포항 장마당 매대 배치도(2001년 말)



<그림 3> 청진 청년공원 장마당 매대 배치도(2001년 말)



2) 신의주 장마당

(1) 1990년대 초반(1990~1994년)

신의주도 전반적인 식량배급 사정은 청진과 유사해서 1990년대 들어오면서 상당히 어려워졌다(S23).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시내 공장들에서 만든 신발, 필기도구, 의류 등 채하 장마당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던 제품들이 점차 중국산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S18). 이 무렵 청진이나 혜산에서는 조선족 보따리장사들이 반입해 온 물품들을 주로 개인집에 넣어놓고서 파는 게 일반적이었던 데에 반해, 신의주에서는 단속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물품들이 장마당에 적지 않게 유통되었다.

1990년대 초를 넘기면서 식량배급 사정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영세

한 하층민 가운데 일부가 음식장사나 공업품 장사를 하기 위해 기존의 장마당만이 아니라 도로변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무렵 신의주에서는 도급 이하 주요 행정·사회단위나 일부 기업소들에서 자체적으로 “후방공급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외화벌이에 나서기 시작했다(S18). 또 불법적으로 수집된 북한 내의 동(銅) 같은 금속이 본격적으로 중국 쪽으로 밀수출되기 시작했다¹⁵⁾. 조선족이나 화교가 반입해 온 공업품과 더불어 이런 쪽을 통해 밀수입된 일부 물품이 채하 장마당 등에 유입되고, 타지방 되거리 장사가 빈번해짐에 따라 다른 도시들보다 비교적 일찍 장마당이 활성화된 면이 있다. 그렇지만 영세한 가구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장마당 장사에 상당히 적극적이었지만, 대체로 주민들은 생활이 어려워지는 가운데에서도 식량배급과 노임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었다(S9-2, S22).

이 시기에 당국은 청진에서와 마찬가지로 장마당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는 했지만, 실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다른 두 도시와 달리 뿌리 깊게 잔존해 온 신의주 특유의 사적 상거래 전통이나 해상 밀무역이 용이한 지리적 조건 등이 적지 않게 작용한 탓도 있다. 따라서 당국은 이미 이 시기에도 중앙에서 조직한 “비사회주의 검열그루뵀”를 수차례 신의주에 파견하여 장마당을 비롯한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을 억제하려고 했다.

(2) 1990년대 중반(1995~1997년)

시 전체적으로 식량 미공급 상태에 들어간 1995년 무렵 행정계통 주요 단위들에서 식량조달을 위해 자체 외화벌이를 조직할 정도로 주민들의 식량사정은 긴박해졌다(S18). 단적인 예로 신의주의 식량사정이

15) 2001년 5월 7일, 신의주 출신 ○씨, 필자 면접.

가장 어려웠던 1996~1997년에는 신의주화장품공장 적재창고가 반출할 고철더미와 반입한 밀가루로 넘쳐날 정도였다. 또 큰 공장·기업소들 정도가 화물차를 가지고 남포항에 가서 식량을 운반해 오거나, 자체적으로 외화별이를 조직해서 종업원들에게 소량의 밀가루나 강냉이이라도 배급해 줄 수 있는 형편이었다(S18, S19). 따라서 대다수 주민들은 자력으로 생계유지 방안을 찾아야 했다. 드물기는 했지만 동네에서 텔레비전, 선풍기 등 가재도구를 내다 파는 가구가 나오고, 다른 도시에 비해 그 수가 적기는 하지만 아사자가 발생했던 이 무렵에 “장사 안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일반 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장마당과 밀착될 수밖에 없었다(S18, S21, S9-2, S22).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의주는 산업구성상 경공업부문의 대규모 공장·기업소가 다수 있고, 육상과 해상으로 중국과 직교역할 수 있는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 주민들 사이에 “거간꾼 기질”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다른 두 도시와 차이가 나는 이런 요인들도 이 시기 신의주 장마당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이 무렵부터 일부 경공업제품 생산공장들에서 “채나온” 완제품이나, 원료, 자재 등으로 만든 수제신발이나 화장품 등이 채하 장마당 등에서 다량 유통되기 시작했다.

1995~1997년은 전국적으로 볼 때 신의주에 “외꾸” 외화별이나 “사민” 외화별이가 가장 많이 몰렸기 때문에 각종 반출용 원천물자가 신의주에 집중되었다.¹⁶⁾ 이런 물자의 반출이나 대치물자의 반입과정에서 밀수꾼이든 개인 장사꾼이든 간에, 아니면 공장·기업소 자체지도원(자재인수원)이나 외화별이 일꾼의 직함을 갖고 있던 간에 신의주 주민들

16) 그렇지만 대일·대러교역의 위축으로 인해 청진 쪽이 “많이 죽기는 했지만” 국가적으로 “힘 있는 단위”의 무역회사 계열 청진 쪽 외화별이는, 단동을 거쳐 중국 “대방”만을 상대해야 되는 신의주 쪽 외화별이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기도 하다. “중국 자체는 일본에서 주는 가격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C48-1).

중에는 “거간꾼”으로 활동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시내 장마당, 특히 채하 장마당의 독특한 점이다.¹⁷⁾

이 시기 청진과 마찬가지로 신의주에서도 당국은 시내 주요 장마당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일반 주민들을 거의 통제할 수 없었고, 1995년경에 장마당의 무질서한 확산을 차단하고 장사꾼들을 원활하게 통제하기 위해 채하 장마당과 남송동농민시장을 정비하는 정도에 그쳤다(S14-1). 그 대신에 다른 두 도시에서도 그러했지만 당국은 주로 “사민” 외화벌이 장사꾼들과 밀수꾼들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데 집중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3) 1990년대 후반(1998~2002년)

이런 여러 사정이 작용해서 1990년대 후반에 신의주 주민들은 하루 벌이 장사, 해상외화벌이, 부업선 품팔이, 임시노력, 영세 소행상, 타지방 되거리장사, 투기적인 중간상인이나 전문 밀수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장마당에 참가했다. 물론 이런 특징은 청진에서는 상당히 유사하게, 그리고 혜산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신의주의 지리적·산업적·사회문화적 특성 때문에 신의주 시내 장마당에서는 다른 두 도시에 비해 좀더 일찍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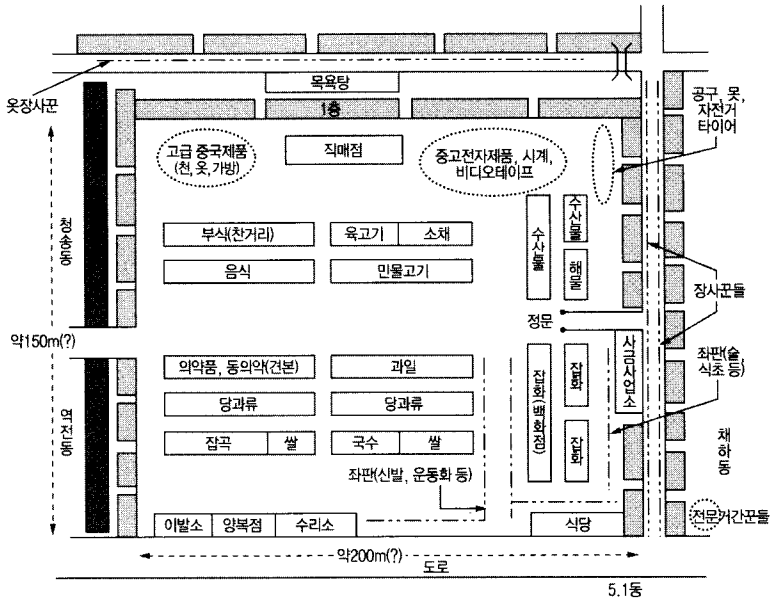
17) 특히 신의주 출신 탈북자들의 경우 ‘거간꾼’에 관한 언급이 빈번한데, ‘거간꾼’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고난의 행군이 지나면서 기관 기업소에서 쌀을 못 주고 대곡도 안 해주었다. 그러니까 신의주에서 (공장) 지배인들에게 너희 능력껏, 너희가 먹여 살리라고 했다. …… 배급을 못 내주니까 사람들 일을 못시킨다. 이 사람들이 직장에 안 나가고 다 암거래 시장으로 나가서 거간꾼 행세를 한다. 좀 능력 있고 눈 좀 돌아간 사람은 크게 사기 해먹고, 능력 없고 한 사람은 시장 나가서 조그만 장사꾼 사기 쳐먹고 자기 능력에 맞게 한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시장 나가서 공업품을 팔고 신발 하는 여자들에게 내가 얼마를 팔면 돈 몇 포를 달라고 해서 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소개시켜 주고 팔아주고 팔아준 값으로 얼마를 받는다. 그러니까 밀바닥 사람들은 몸으로 때워서 먹고 산다”(S19).

또 이 무렵에는 이전에 한산했던 시 외곽지역의 장마당까지도 주민들이 붐빌 정도로 장마당은 급격하게 확산되었다.¹⁸⁾ 이런 확산과정에서 청진과 유사하게 채하 장마당을 정점으로 하여 시내 주변부에 위치한 남송동농민시장과 친선 장마당, 그리고 시 외곽에 위치한 락원 장마당 사이의 위계적 연결망이 형성되었다. 채하 장마당은 물자유통 등 접근의 용이성에서 시장적 거래의 공간적 거점이었기 때문이다(S19, S19-1). 다음의 <그림 4>와 <그림 5>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내 다른 장마당들과 비교할 때 채하 장마당의 위상은 청진의 수남 장마당과 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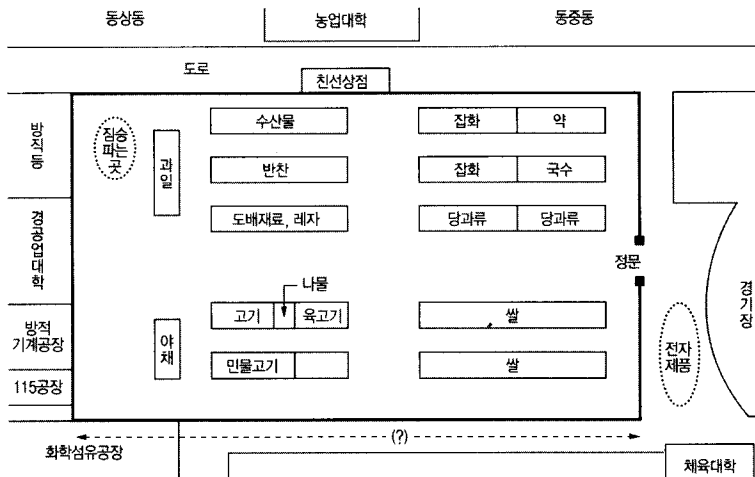
청진에서와 마찬가지로 당국은 1990년대 말 이후 시내 주요 장마당 단속을 강화하면서 각급 단위조직별로 고난의 행군 시기의 “비사회주의적 개인리기주의”를 비판하는 총화를 조직하는 한편, 2000년 이후에 다시 채하 장마당을 확장했다(S14-1). 주된 목적은 장마당의 혼잡상을 대외적으로 은폐하고, 주민들의 장마당 출입을 통제하려는 데에 있었다. 그렇지만 물리적 단속과 병행한 이런 공간적 정비는 주민들의 장마당 참가를 억제하는 데 거의 소용이 없었다. 2002년 무렵에도 “안 나오면 못살기 때문에 매일 같이 단속해도”, “골목 장사”는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S18).

18)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1980년대의 농민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남신의주의 락원 장마당 같은 경우 “사람이 많아서 장마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골목 골목을 장마당으로 만들어서 길바닥에 앉아서 파는 식이었다”(S9-2).

<그림 4> 신의주 채하 장마당(2002년 초)



<그림 5> 신의주 친선 장마당(2002년 초)



3) 혜산 장마당

(1) 1990년대 초반(1990~1993년)

혜산의 경우에도 1990년대 장마당의 활성화와 발전 양태는 일차적으로 시내 주민들 식량배급 사정과 관계가 있다. 1992년경에 혜산방직 공장이나 도급 비생산단위 사업소를 포함하여 일부 큰 공장·기업소가 부분적으로 미공급상태에 들어간 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내 식량배급사정이 악화되었다.¹⁹⁾ 이에 따라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부녀자들의 봉제나 밀주 등과 같은 가내부업이 늘어나고, 부양여성들이 음식장사나 뿔감장사 등을 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H2, H3, H14, H15). 또 이전에 혜산 장마당이 옮겨 다녔던 터들을 중심으로 “메뚜기 장마당”들이 만들어지고, 산발적인 단속이 뒤따랐다(H7, H13-1).

그런데 이 무렵 시내 장마당이 급격하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다른 두 도시와 마찬가지로 당국이 강력하게 단속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몇 가지 사정도 작용했다. 우선 주요 공장·기업소들에서 부업지를 경작해서 한동안 세대주 종업원의 식량만큼은 공급하려고 했던 점을 들 수 있다. 또 중국 쪽에서 공식적으로 반입하거나 밀수로 들여온 소비재 공업품들이 시내 장마당에 부분적으로 직접 유통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개인집 판매상인들을 통해 타지방 되거리장사로 많이 나간

19) 2000년 이후에 탈북한 혜산 거주 피면접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1990년대 혜산 시내 장마당의 단계적 활성화 국면을 소시기별로 구분할 때 ‘중반’과 ‘후반’의 기점이 청진이나 신의주에 비해 1~2년 정도 앞선다고 볼 수 있다. 주된 이유는 고산지대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원래 식량사정이 열악한 혜산은 1990년대 이전에도 다른 두 도시에 비해 주민들이 훨씬 더 어려운 식량사정을 감내해 왔는데, 북한 전체적으로 식량배급 사정이 급속히 악화된 1990년 초에 다른 지역들보다 먼저 ‘고난의 행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동안에 혜산은 “졸업”했다는 것이 혜산 출신 탈북자들의 체감적 판단이다.

점도 부분적인 이유가 된다(H6-1, H9, H14, H17-1).²⁰⁾ 그리고 청진과 유사하게, 당원이 장사를 한다고 동네 주민이 법기관에 제소를 할 정도로 ‘불법적’ 장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적지 않게 부정적이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H18-1).

(2) 1990년대 중반(1994~1996년)

1995년경에는 혜산의 주요 기관·기업소의 대다수가 완전한 식량 미공급상태에 들어갔고, 1996~1997년경에는 보위부 일꾼의 가족조차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H13-1). 동네에 따라서는 인민반에서 최하층 가구의 가족해체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일부 가구에서는 가재도구를 내다 팔거나, 드물게 아사자가 발생하기도 했다(H9, H12).²¹⁾

20) 특히 혜산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장마당을 거치지 않고 밀수를 통해 반출입된 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92~1993년에 중국에서 해리서 목장을 꾸렸을 때 혜산 청년들이 황해도나 자강도 등지의 목장에까지 나가서 “다 채워서” 밀반출한 일이 있었다(H13-1). 이 사례에서 보듯이 장마당을 거치지 않고 혜산이 중개지가 되어 반출입된 물자가 상당했다. 혜산을 통해 중국 쪽으로 밀반출된 품목은 시기적으로 변화를 보이는데, 1980년대 중후반에는 주로 해산물,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금, 은 등의 귀금속과 동, 니켈, 코발트 같은 금속광물, 그리고 고철류가, 199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골동품이나 아편류가 두드러졌다. 물론 현재까지도 이 품목들은 개인 밀수꾼이나 외화벌이 일꾼들을 통해 모두 반출되고 있으나, 점차로 부피가 작고 경량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품목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여 왔다. 반면에 밀반입된 품목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주로 의류, 천, 신발, 식용유 등의 일상소비용품과 담배 등의 기호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21) 미공급사태에 대한 개별가구의 대응전략은 시내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다. 예컨대 혜명동의 20여 세대로 구성된 한 인민반에서는 행복 가구가 1~2세대 있었던 반면에(H12) 60여 세대로 구성된 혜화동의 한 인민반에서는 2~3세대가 행복되거나 아사했다(H13-1). 마찬가지로 가재도구를 내다 판 가구들은 “그나마 팔 거라도 있을 정도로 먹고살 만한 여유가 있었던 집들”이거나 돈벌이가 될 만한 물건을 넘겨받기 위한 밀천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지만, 하층 가구들은 이런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H3-1). 또 “심지어 대학교수들 같은 경우에도 옛날 공부할 때 사전들을 싹 가져나와 팔고, 집의 가구를 다 가져나와 팔아야 식량을 먹고 살 판이었다. 국수 한 사레를 사가

당연히 장마당 장사나 밀수에 가담하는 주민들이 급증했다(H2, H16-1, E7).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무단결근하거나 명목상 출근한 뒤에 작업장을 이탈하는 등 출근정형이 크게 흐트러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²²⁾ 1990년대 중후반에 혜산제지공장의 종업원 출근율이 50% 정도 되었을 것이라는 언급에서 엿볼 수 있듯이(H12), 생계유지를 위해 “인민반에서 늙은이들 내놓고는 100% 다 몽땅 장마당에 나갔을” 정도였다(H13-1). 1996년경에는 중국 조선족들이 혜산에 들어와 음약을 틀어놓고 장사를 할 만큼 장마당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시내 주민들의 생계유지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다른 두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장마당에 대한 당국의 통제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른 두 도시와 비교할 때 이 시기 혜산 장마당은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줬는데, 하나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주민들의 장마당 참가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장마당의 활성화 못지않게 특히 압록강 접경 동네주민들에 의한 소규모 밀수가 대단히 성행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초반에 비해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진 이 시기 장마당의 활성화는 지역사정에 기인하는 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고 가야 하루 살고 그 다음날 또 나와 팔아야 하루 사는 상황이었다”(H2). 신의주 쪽과 마찬가지로 혜산 출신 탈북자들은 거의 한결같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발생한 시내 지역 아사자들의 대다수는 장사차, 또는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 혜산에 들어온 함북, 함남, 자강도 등지의 타지역 주민들이라고 보고 있다.

- 22) 이런 사태에 대응해서 공장·기업소에서는 종업원들에게 일정 기간 출근을 면제해 주거나 “나무방학”을 주기도 했다(H7, H15, H16-1, H17-1, H18 등). 또 일부 광산에서는 원목이나 원광석을 중국 쪽에 보내고 식량을 확보해서 직접 배급해 주기도 했다. 도급의 한 사업소에서는 1997년에 직장별로 부업지를 새로 떼어주고 종업원들이 자체적으로 농사를 지어 식량을 해결하라고 하기도 했다(H14). 이 무렵부터 도·시급 당정기관의 일반 중하급 간부들까지도 국경가격으로 구입한 물자를 가지고 친인척 등과 “유무상통”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 처지에 있었다고 한다(H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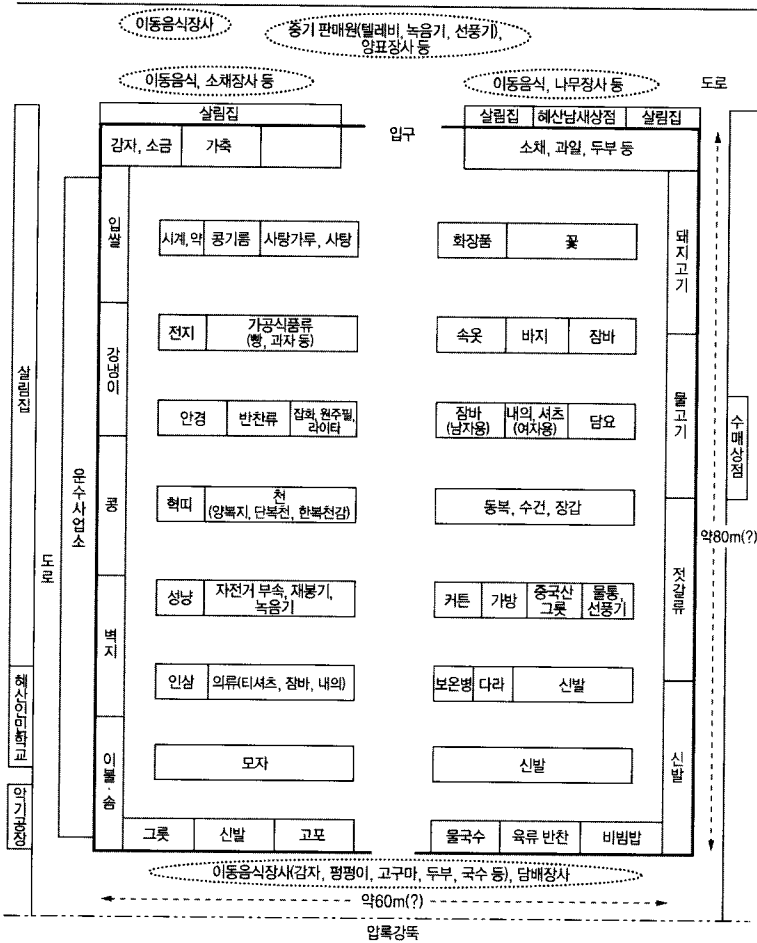
(3) 1990년대 후반(1997~2002년)

시내 장마당의 확장세는 1997년경에 기존의 농민시장인 혜강동의 혜산 장마당에 더하여 련봉 장마당(춘동 장마당)과 위연 장마당이 정식 으로 승인된 데에서 잘 드러난다. 그 외에도 송봉 장마당, 혜신 장마당 등이 만들어졌다(H8, H9, H13-1, H16-1).

1990년대 말에 시내 장마당은 다른 두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두 가지 주요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우선 <그림 6>과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혜산 장마당을 중심으로 여타 장마당들이 위계적으로 연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예컨대 시내 주민들이든 타지방 되거리 장사꾼이든 일차적으로 혜산 장마당에 몰려들었다. 수입 공업품이 혜산 장마당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두 도시에서도 이 무렵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지만, 장마당에 신규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1997년에 장마당 시설을 정비할 때에 매대 설치비용을 부담한 장사꾼들이 매대의 고정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지만, 1998년을 넘어가면서 공장·기업소 등에 적을 두고 있거나 부양여성으로 있으면서 장마당 참가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주민들까지도 장마당에 뛰어들 틈이 크다. 따라서 혜산 장마당 같은 경우, 청진의 수남 장마당이나 신의주의 채하 장마당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장마당 공간에 진입하지 못한 다수의 주민들이 장마당 주변에 몰려들어 실질적으로 장마당을 확장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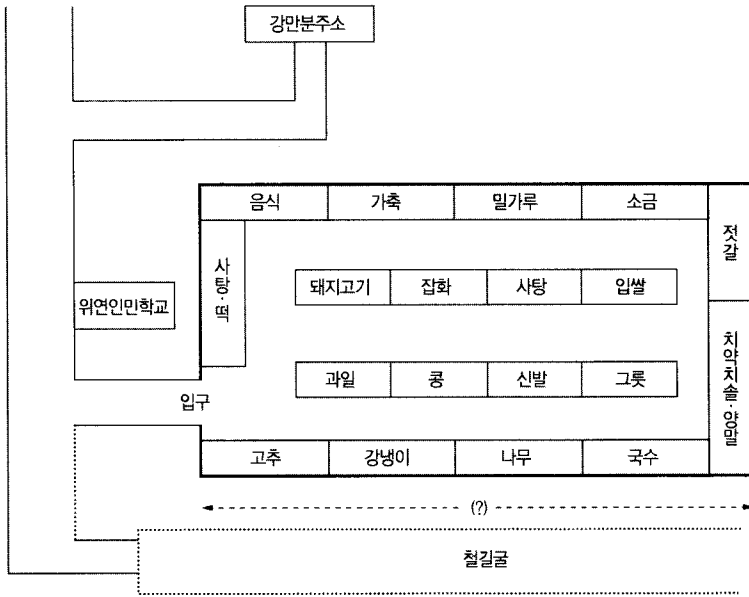
당국은 장마당을 통제하기 위해서 1997년 7월에 도행정위원회의 주관하에 혜산 장마당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이는 시내 장마당의 물자 유통 등이 너무 무질서해서 통제하기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매대 등 장마당 시설과 설비를 정비하고 농토산물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본보기” 장마당으로 내세우기 위해서였다. 이 무렵 매대 장사꾼을 관리하기 위한 출판장제가 만들어지기도 했다(H7, H13-1, S0-1). 또

<그림 6> 헤산의 헤산 장마당(2001년 후반)



1994년과 1998년의 중앙당 집중검열에 뒤이어 이른바 “헤산사건”을 빌미로 극단적인 폭력을 사용하여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했다(H13, H14). 그러나 그 효과는 역시 일시적이었을 뿐 오래 가지 못했다.

<그림 7> 헤산 위연 장마당(2001년 후반)



4) 1990년대 말 세 도시 장마당의 동기화

세 도시 모두에서 2002년경에 이르면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세 도시의 주요 장마당들은 공간적 배치면에서 시내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신의주의 채하 장마당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이래 사회주의 개조가 이루어지기 전인 1950년대 후반까지 사적 상거래의 중심적 시장터이기도 했다. 1990년대 말의 이런 공간적 양태 변화, 즉 주요 장마당의 도시공간적 중심화는 195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북한당국이 끈질지게 시도해 온 농민시장과 장마당의 도시공간적 주변화 전략이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구나 세 도시에서 공히 ‘중심적’ 장마당과

‘주변적’ 장마당들 사이에는 일정하게 도매-소매, 공업품-농토산물, 신품-중고품 판매 등과 같은 위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분화된 연결망의 모양새를 갖추게 됨으로써 사회주의 개조 이전 시기의 비계획부문 시장에 비해 더 발전된 양상을 보여준다. 주민 수, 타지역과의 물자 반출입 규모, 외부에서의 지리적 접근 용이성 등에서 뒤지는 해산은 이런 분화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점에서 다른 두 도시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둘째, 세 도시에서 1995년의 국가식량배급제의 전면적인 붕괴가 장마당 활성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북한당국이 고난의 행군 종료를 선언한 1998년경에 장마당은 시장적 거래공간으로서 불안정하지만 분명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주민들에게 장마당은 생존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세 도시 모두에서 당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시내 장마당에 주민들이 더욱 집중하게 됨에 따라 신규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사실에서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1995년 중반부터 1997~1998년경까지는 주민들의 일상적 생계유지에서 장마당 참가가 주요한 방편으로 자리 잡아가는 일종의 과도기적 조정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정기는 당국이 장마당에서 공업품 판매까지도 묵인함으로써 사실상 장마당과 암시장이 공간적으로 중첩되는 시기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즉, 이 시기를 거치면서 1980년대와 달리 장마당의 위상이 질적으로 변화했다.

셋째, 세 도시에서 장마당이 주민들의 일상적 생계유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지리적 조건의 유사성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산업구성상의 차이가 장마당 활성화에 미친 차별적 효과를 고려할 때 지리적 조건의 유사성은 그 의미가 크다. 산업구성면에서 청진은 중공업부문 공장·기업소의 노동자 비율이 매우 높았던 점과 1998년경까지도 불안정하게 진행된 이 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식량배급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두 도시에 비해 주민들의 시장

적용이 지체된 면이 있다. 과도기적 조정기에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고, 그 기간도 더 길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의주는 주요 공장·기업소가 소비재 경공업부문에 다수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장마당을 통한 주민들의 생계유지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²³⁾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의주나 혜산이 접경도시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그러한 것처럼 청진에서도 라선 등을 통해 중국 쪽과의 물자 반출입이 조정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장마당 활성화가 도시 주민들의 참가 증가와 더불어 유통물자의 증가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때, 특히 중국산 소비재 공업품과 식량의 대량반입은 세 도시 주민들이 장마당에 참가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원천이었다.

넷째, 장마당의 활성화가 진척된 1990년대 후반에 세 도시에서는 거의 동일한 양상의 경제적 계층분화가 발생했다. 이는 앞에서 본 세 도시의 지리적 조건의 유사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세 도시를 통해 반출입되는 물자 유통과정에서의 접근 정도에 따라 주민들의 장마당 참가방식과 개별 가구의 수입이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층에는 외화벌이 일꾼들 및 이들과 연계된 대규모 되거리 장사꾼들이 포함될 수 있다. 중간층에는 식량이나 공업품 도매 되거리 장사꾼과 소수의 타인 노동력을 항상적으로 ‘고용’하는 가내 ‘임가공’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하층에는 대다수의 영세한 가내 ‘임가공’ 종사자, 장마당 장사꾼(천장사 등을 제외), 영세한 ‘행방’ 장사꾼이나 노상 음식장사, “딸딸이꾼” 같은 일용 노동자 등이 속한다.²⁴⁾ 외화벌이 원천

23) 혜산은 임산가공업과 광업 등이 주된 산업이지만 도시경제 전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두 도시와 같은 연관성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24) 이들은 대체로 하루별이 생계유지에 급급한 부류라고 볼 수 있다. 실례로 음식장사 같은 것은 1~2천 원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번잡스럽게 품을 들이는 것에 비해 남는 것이 별로 없어서 하루 벌이 1kg라도 어떻게 든 살 수 있을 정도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서는 사람들도 많다. 해서 되면 먹고 치우고, 그 다음에 못 했다가 돈이 모아

확보의 용이성과 경공업부문 공장·기업소의 상대적 집중 때문에 신의주가 장마당 참가자들의 직업 분화 등에서 다른 두 도시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런 경제적 계층분화 양상은 세 도시에 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다.

이와 같이 1990년대 말에 이르면 세 도시 장마당은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동기화는, 1980년대의 도시 농민시장이 주민들의 부차적인 소비욕구를 실현시켜 주는 경제적 공간으로서 국가상업유통망을 소극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에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 장마당이 주민들의 일상적 생계유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반(半)’공식부문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뜻한다.

4. 장마당 활성화의 체제변동론적 효과

집단적 행위주체로서 도시 주민들의 일상화된 장마당 참가는 그들의 사회적 의식과 행위양식 등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에 따라 국가에 의해 주도된 기존의 사회정치적 지배질서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사회 내적인 ‘아래로부터의’ 체제변화 동력의 생성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1990년대 세 도시의 대다수 가구 성원들의 장마당 참가와 그에 따른 장마당 활성화가 초래한 체제변동론적 효과 문제를 사회계급적 주체 형성, 시장지향적 주체 형성, 탈국가화된 정치적 주체 형성이라는 상호연관된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계급적 주체 형성의 전망 문제이다.

1990년대 세 도시에서 대체로 장마당과의 연계방식에 따른 개별 가

지면 또 하고 하는 식이다”(C52). 이런 증언은 청진이나 신의주의 변두리 지역 출신 탈북자들한테서 쉽게 들을 수 있다.

구들의 차별화된 수입과 소비활동은 경제적 계층분화를 가져왔다. 여기서 일단 주목할 수 있는 부류가 가내임가공 등의 방식으로 신발, 의류, 변압기 등을 가구 단위의 분업화된 공정을 통해 생산해서 장마당에 출하하는 ‘생산적 부문’의 종사자들이다. 그렇지만 이런 ‘생산적 부문’의 가계수입 활동은 상당히 한정적이다. 많은 경우 이들의 수입은 하층의 생계유지 수준을 넘지 못하고, 세 도시의 주요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상품들 가운데 가내 임가공생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생산 활동은 매우 열악한 전력사정이라는 북한적 특수성으로 인해 제약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보다는 장마당과 연계된 유통과정에 개입하는, 잠재적 ‘상업자본가’라고도 할 수 있는 외화벌이 일꾼이나 대규모 되거리 장사꾼들에게서 사회계급적 주체 형성의 좀더 현실적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가능성은 몇 가지 점에서 아직은 유보적이다. 우선 이들의 사적 ‘자본축적’ 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다.²⁵⁾ 부단히 반복되는 외화벌이 종사자들에 대한 검열과 구속에서 이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국가적 통제를 의식하여 외화벌이 종사자들 스스로 ‘과도한’ ‘개인재산’ 축적을 억제하는 의식적인 자기검열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은 물려줄 수 있어도 재산은 물려줄 수 없게 되어 있고” “허용되는 액수를 넘어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화를 입는다(E6)는 한 증언에서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마당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계층분화의 효과로서 제기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급적 주체의 형성 전망은 아직은 불확실

25) 정식 ‘외꾸’를 받은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위의 무역회사 계열 외화벌이사업소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는 문건은 당중앙위원회 외화벌이 ‘지도서’이다. 이 문건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경우, 도무역국 산하 시·군 외화벌이사업소 계통의 외화벌이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외화벌이 종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하다고 볼 수 있다.²⁶⁾

둘째, 시장지향적 주체 형성 전망 문제이다.

공장·기업소의 노동력 통제의 이완이 도시 주민들의 장마당 참가로 연결될 경우, 반시장주의적 규범에 충실한 ‘사회주의형 인간’이 ‘자율적인’ 시장지향적 주체로 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고된다. 이런 가능성을 세 도시 주민들에 의한 시장경제의 체험적 학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가족의 가용 ‘밑천’에 근거하여 ‘장사’의 수지타산을 예상해 보거나, 타인 노동력 사용에 따른 사회적 ‘공정가격’에 대한 묵시적 합의도 이루어지고 있다.²⁷⁾ 또 사회적 노동가치에 대한 화폐적 인식 전환도 보편화되다시피 했다.²⁸⁾ 이와 연관되어 ‘시간은 돈’이라는 부르주아적 시간관념도 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다음 증언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1999년 이후에 드물게 배급이 나올 때에도 고난의 행군 이전과는 다

- 26) 한 가지 부기해 둘 것은, 장마당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이른바 “돈주”의 문제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가 없지만, 계급적 존재로서 ‘돈주’의 실체와 관련하여 예컨대 몇 가지 논점이 제시될 수 있다: ① 1980년대 후반(1989년 평측 행사자금 마련 관련)부터 1990년대(국가 특수권력기관들의 외화벌이 이권을 둘러싼 권력 상충부의 분파적 투쟁 관련)까지 돈주 형성의 전사 및 사적 자본축적 계기 규명 문제, ② 돈주 ‘집단’의 인적 구성 문제(출신성분, 토대, 그리고 국가 최상층 핵심엘리트와의 연계 등), ③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뒤이은 일련의 조치들(공장·기업소 운영의 자율권 확대, 개인재산보호법, 행정간부사업대상에 돈주 인입, 소규모 생산설비 등에 대한 돈주 투자의 비공식적 인정 등)과 관련해서 돈주의 사적 자본축적 방식의 규명 문제 등. 이 글에서는 자료의 한계상 이 문제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다.
- 27) 한 30대 기혼 여성(S22-1)은 생활고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의 수입지출을 짜임새 있게 관리하기 위해 일일 금전출납부를 작성했다. 또 청진역 앞의 “딸 딸이꾼”들이 짐을 운반할 때 시내와 외곽지역을 구분해서 품삯을 달리 받았는데, 주민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 28) 고난의 행군 시기에 청진의 한 고등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잡부금을 걸었을 때 학생들은 이를 즉각 장마당의 쌀값 시세로 따져 계산하곤 했는데 담임교원은 이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한다(C52).

르게 주민들이 식량배급소 앞에 길게 늘어서서 대기하는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배급물량이 적어서 줄 선 주민들 모두가 소량일망정 배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나, 경험에 비취 당국의 배급 재개 선전에 대한 불신이 강한 것도 이유가 되지만, 설령 장시간 대기해서 국정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암매(暗買)한 배급표를 가지고 국정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들인 노력과 시간을 따져보면 차라리 장마당에 나가 번 돈으로 식량을 구입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C31).

그런데 장마당 참가를 통해 도시 하층민들은 최소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를 위해 상당한 육체적·심리적 긴장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²⁹⁾ 가령 “먹을 게 좀 가라앉은 다음에는 아무래도 냉동기, 텔레비를 사자고 한다”(C34-1)라는 개별화된 소비욕구를 이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욕구는 “절대 다수는 생활비를 높여줘서 장마당에 나가 쌀이나 부식물을 사먹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S21)이라는 언급에서 엿볼 수 있듯이, 기존의 국가의존적 태도를 크게 탈피하지 못한 비현실적 바람과 맞물려 있다. 즉,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세 도시 주민들에게 체화된 이런 시장지향적 가치들이 ‘아래로부터’ 시장지향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는 유의미한 동력이 되기에는 아직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탈국가화된 정치적 주체 형성 전망 문제이다.

북한당국은 식량배급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1996~1997년에 도시

29) 실제로 장마당 참가자들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층 가구들의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것이 텔레비전과 같은 “여가용 중기”나 생계용 자전거의 보유비율 증가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에 비해 ‘때식’을 거르지 않는다거나 입쌀의 혼합비율이 좀더 늘었다는 수준을 넘어 서지 않았다.

장마당의 활성화를 어쩔 수 없이 방치했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2000년 넘어서까지도 장마당에 대한 억압적인 통제로 일관해 왔다. 이는 세 도시에서 모두 확인되는 점이다. 당국이 이런 정책에 집착한 목적은 “기업소가 노동자를 먹여 살리는 것에는 관심을 안 돌려도 출근을 시키는 것은 기본문제”(C31-4)라는 언명에서 간명하게 드러나듯이, 일차적으로 공장·기업소의 노동력 통제와 주민 조직생활의 이완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장마당은 국가기구의 폭력적 단속과,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 사이의 가시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정치적 공간으로 작용하게 된다.³⁰⁾ 실제로 1990년대 후반의 장마당은 비조직적이고 단발적이기는 하지만 주민들과 국가권력 사이의 갈등이 집단적인 체험 속에서 조성되는 정치적 공간으로 작용했다. 예컨대 세 도시의 장마당에서 안전원이나 순찰대가 통제물품을 단속하려 나타날 때 매대 장사꾼들이 상호 간에 신호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 데에서 이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비정형화된 방식으로 국가권력에 저항한 셈이다.³¹⁾ 비록 소규모 집단에 의해 한정된 공간 안의 행위이긴 하지만 국가권력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적인 저항과 갈등은 이전까지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장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연대의식의 ‘실천적 학습’ 효과

30) 이와 유사하게 1980년대 탄자니아의 한 도시 사례 연구를 통해 비공식부문 경제활동을 국가와 피지배층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는 장으로서 파악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Aili M. Tripp, *Changing the Rules: The Politics of Liberalization and the Urban Informal Economy in Tanzan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참조.

31) 주민들 대다수가 밀주(“농태기”)를 제조해서 장마당에 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청진의 한 동네에서도 분주소에서 단속을 나오면 인민반장이 몰래 동네사람들에게 알려서 피하도록 했던 것(C50-1)도 시장공간은 아니지만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소극적인 집단저항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는 참가자들 사이의 판매경쟁에 따른 불신과 이해갈등 때문에 부단히 침식당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승냥이와 여우만 살아남았다’라는 시쳇말은 이런 침식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앞의 두 가지 전망과 마찬가지로 장마당 활성화의 한 효과로서 탈국가화된 정치적 주체 형성 전망 문제도 장기적인 체제변동론적 차원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세 도시에서 생계유지에 큰 곤란을 느낀 영세 가구들 위주로 시내 장마당 참가가 이루어지다가, 1990년대 중반 식량 배급제의 거의 전면적인 붕괴 뒤에 장마당은 급격하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 2000년대 초까지도 해당되는 세 도시 장마당의 주된 특징은 ① 대다수 주민들에게 가족 생계유지의 주된 방편이 되었다는 점, ② 당국이 공업품 등 기존 통제품목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장마당과 암시장이 공간적으로 중첩되었다는 점, ③ 대다수의 유통물자가 중국산 공업품이라는 점에 있다.

신의주가 중국 공업품 반입의 용이성과 그에 따른 대(勤)중국 물자의 활발한 반출입, 사적 상거래의 잔재, 경공업생산의 중심도시라는 요인들 때문에 시기적으로 장마당 활성화 과정이 빨랐다면, 혜산은 중국지역과의 지리적 근접성에 기인하는 밀수품의 반출입에 힘입어 짧은 기간 내에 급속하게 장마당이 확산되었다. 반면에 청진은 중공업 도시로서 신의주나 혜산과 같은 활성화 촉진 요인들이 약해서 시기적으로 약간 뒤졌지만 대일교역항을 끼고 있고, 라선과 인접해 있어서 이내 장마당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1990년대 후반에 세 도시는 상

이한 산업지리적 요인에 기인한 몇몇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내 장마당의 공간적 확산과정이 전반적으로 동기화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세 도시 장마당 활성화는 장마당을 매개로 한 물자유통과 참가자들의 증가에 의해 촉진되고, 그 과정에서 시장적 거래관계의 확산을 가져왔다. 세 도시에서 ① ‘중심적’ 장마당이 공간적으로 도심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점, ② 1990년대 후반 이후 당국의 ‘비사’ 검열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시내 장마당 신규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주민들의 일상적 생계유지활동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 등은 장마당이 불안정한 지속 상태를 지나 ‘비공식적인 준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여기서 1990년대 세 도시 장마당의 활성화가 북한체제변동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할 때, 집단적 행위주체에 의한 아래로부터 체제변화 동력의 생성 전망과 관련해서 장마당의 활성화는 상호연계된 세 가지 면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① 기존의 ‘정치적 신분’ 지배 질서에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새로운 사회계급적 주체의 형성 가능성과 연관된 사회적 공간의 확대, ② 시장가격기제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적 합리성을 지닌 시장지향적 주체의 형성 가능성과 연관된 경제적 공간의 확대, ③ 도시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매개로 한 탈국가화된 정치적 주체 형성 가능성과 연관된 정치적 공간의 확대.

그러나 이런 가능성의 현실적 전화 전망은 아직은 크게 제약되어 있다. ①의 경우 가내 ‘임가공’ 등의 ‘생산적 부문’에 종사하는 부류와 외화벌이일꾼이나 도매장사꾼과 같은 잠재적 ‘상업자본가’ 부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자는 대다수가 자신의 사적 축적기반을 단순재생산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에 있고, 후자는 사적 자본축적을 억제하는 자기검열에 구속되어 있다. ②의 경우 부르주아적 시간관념의 체득과 같은 시장경제의 학습효과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경

제적 계층체계 내의 다수를 차지하는 하층 가구가 열악한 가구수입의 한계로 인해 개별화된 소비욕구 충족을 위해 국가온정주의에 기대는 유습(遺習)을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그 가능성이 침식되고 있다. ③의 경우 물품단속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가권력에 대한 장마당 참가자들의 비정형화된 일시적인 집단적 갈등과 ‘저항’에서 연대의식의 맹아적 형태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판매경쟁에 따른 개별화된 이해관계에 의해 이 가능성도 상쇄되고 있다.³²⁾

이와 같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활성화된 결과로 장마당은 그 이전과 달리 질적 변환을 거쳐 ‘비공식적인 준제도화’ 단계까지 ‘발전’했지만, 집단적 행위주체 수준에서 북한체제변동을 압박할 수 있는 동력의 생성이라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세 도시의 사례에 비춰볼 때 장마당의 활성화에 따른 주민들의 이동성 증가, 조직생활의 이완, 집단주의적 사회규율의 해체 등이 아직까지는 지배권력의 재생산에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제기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탈식민화된 자율적인 행위주체로서 자기 재정립하기에는 주민들은 아직은 역부족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배권력이 주민들의 일상화된 장마당 참가 현실에서

32)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지만, 집단적 행위주체 차원의 체제변동론적 전망이 중단기적으로 불명확하다고 할지라도 국가(계획)부문을 제약하는 구조화된 경제적 요인으로서 장마당의 현실적 의의에 대해서 마땅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마당의 활성화와 가속적인 확산은 장마당의 물자순환 경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를 점점 약화시켜 왔다. 국가 주도의 (계획적) 자본축적에 투하되어야 할 경제적 잉여가 부등가교환에 의해 국외유출되는 경로상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장마당이다. 장마당이 활성화될수록, 사회적 영역의 유동자금이 증가하는 반면에 국가(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은 가중되고 계획부문의 회생가능성은 적어진다. 문제는 폭력적인 단발적 조치 이외에는, 점점 더 자율화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 가는 장마당의 물자순환 고리의 어떤 부분을 파열시킬 수 있는 가용자원을 국가가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이런 구조화된 제약의 부과라는 점에서 장마당의 활성화는 국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장마당에 의존해서 자력으로 생계를 꾸리는 기술을 체득한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국가의 ‘호출’에 자동반응적으로 작동하는 피동적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지배권력에게는 주민들을 장마당에서 끌어내어 국가영역 내로 ‘동원’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자극’의 예비가 거의 없는 것 같다. 국가폭력을 전면에 내세워 주민들을 장마당에서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려는 책략은 무력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새로운 집단적 행위주체로서 성장할 잠재적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지배권력은 1990년대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세 도시 장마당의 활성화는 위 세 가지 차원의 집단적 행위주체 형성이라는 점에서는 적극적인 의의를 갖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배권력을 이런 딜레마에 처하게 하고, 장마당에 대한 정책적 대응차원의 선택폭을 협애화시켰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갖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접수: 11월 5일 / ■ 채택: 11월 29일

Farmers' Market in Chungjin, Sinuiju and Hyesan in 1990s

Bong-Dae Choi(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Kab-Woo Koo(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vitalization of farmers' markets in Chungjin, Sinuiju and Hyesan in the 1990s, when North Korea experienced the so-called "arduous march". One of the reasons why the North Korean socialist system did not collapse during this period was that North Korean people relied upon the informal markets for their survival. It could be argued that the reemergence of a market economy resulted in the disintegration of the classical socialist system in North Korea. But it seems that North Korea still retains her system in spite of the revitalized market economy. We argue that the collective agency that could lead to the subversion of the North Korean socialist system has been underdeveloped due to both the anti-market consciousness of North Korean people and the repression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Key Words: North Korea, Sinuiju, Chungjin, Hyesan, farmers' market,
market economy, collective agency